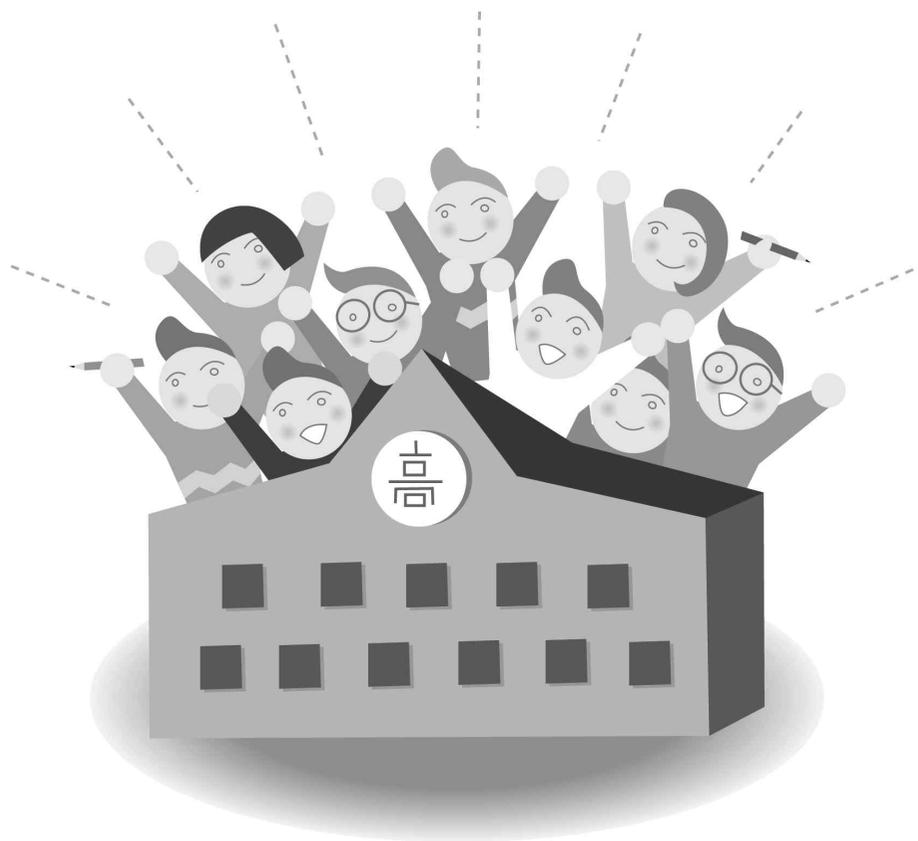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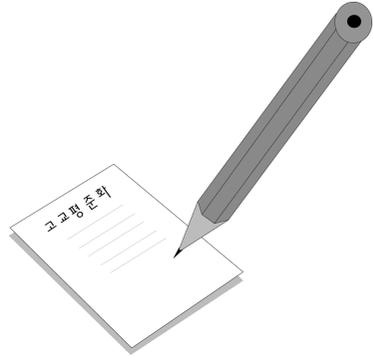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길잡이



경기도교육청

학생 배정 방안의 바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하며

존경하는 경기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하되, 이들이 상충될 경우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급적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우리 교육청의 구체적인 학생 배정 방안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담았으며 또한 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내용과 함께 이 방안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이해하는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제 고교 평준화 제도의 확대 실시로 우리 경기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평준화 시책이 모범적으로 정착되면 우리 경기 교육은 크나큰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더 적합한 교육 제도와 환경 속에서 가르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이해하시고 아낌없이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7. 31

경기도교육감

차 례

1. 고교 평준화 제도의 장점 / 3
2. 학생 배정 방법 / 8
3. 구역 설정 / 19
4. 배정 비율 / 29
5. 고교 평준화 지원 대책 / 32



1. 고교 평준화 제도의 장점

□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부터의 해방

소위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부터 해방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 성적에 의한 극심한 학교 서열화 방지

입학 성적에 의한 극심한 학교 서열이 무너짐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간 위화감이 해소된다.

□ 공평한 학교 선택 기회의 부여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만이 가졌던 학교 선택권을 누구나 공평하게 가질 수 있다.

□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

근거리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짐으로써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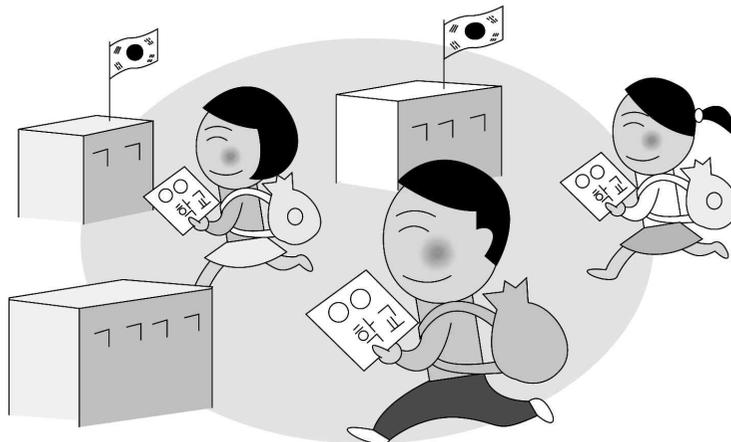


【문고 답하기】

Q1 경기도 수도권 4개 지역에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A 경기도 수도권 4개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를 촉구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실무 검토 결과 이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1999년 초 경기도 내 고교 평준화 정책의 확대 실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주도록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지난 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통하여 4개 시에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우리 교육청은 다시 평준화 정책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학부모의 78.7%, 교원의 84.7%가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에 찬성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00년 12월 28일 경기도내 4개 시에서 고교 평준화를 확대 실시할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평준화 정책 도입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고등학교간 서열화로 인하여 고교 입시 경쟁이 극심하고 이로 인해 중학교 교육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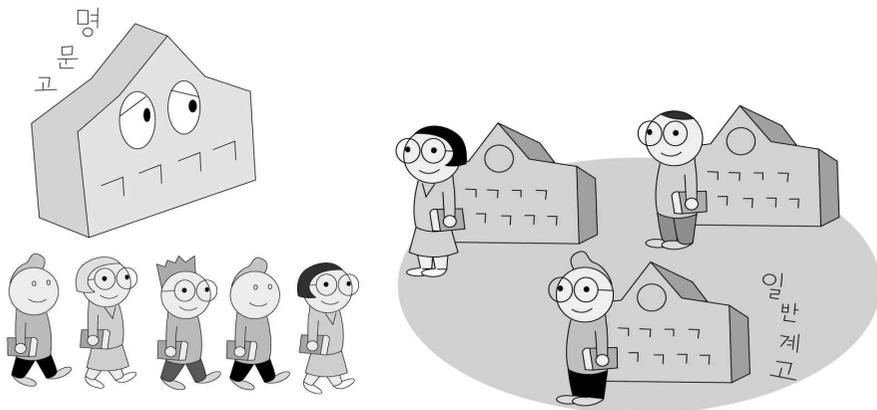
Q2

평준화가 실시되면 소위 '명문고'가 사라지는데, 우수 인재의 양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A 비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소위 '명문고'에서 국가적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수 인재를 한 곳에 모아 육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보통의 학교, 학급에서도 양성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통설이다. 또한 소위 '명문고'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지만 동시에 입학할 때는 남달리 뛰어났던 많은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 입학했을 경우보다 뒤쳐지는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영재 교육은 학교 단위의 수준별 수업과 영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평준화 실시 지역에 요건을 갖춘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원래 전국적인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매우 뛰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학교가 지역별로 설립될 필요성은 높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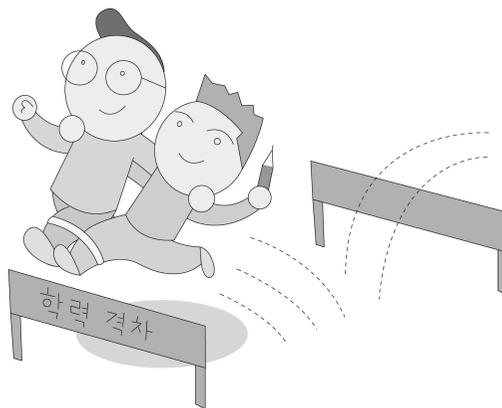
Q3

고교 평준화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간의 학력 격차가 확대되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아닌가?

A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별 입시를 통해 비교적 동질적인 학생들이 입학하지만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는 고등학교에는 학력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게 된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와 교수-학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2002 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면 평준화 제도로 인해 생기는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 확대 문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점을 유념하여 새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하향 평준화’라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연구 결과는 적어도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시험 점수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줄 세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와 적성, 그리고 희망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체제가 마련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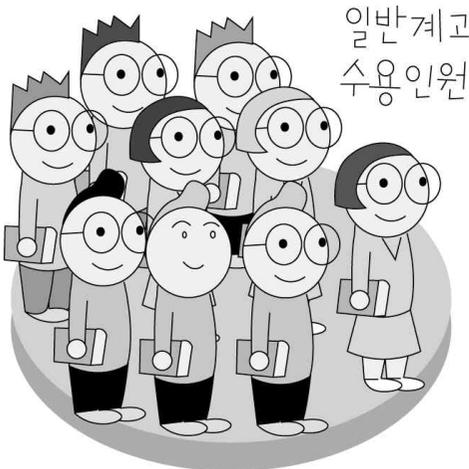


Q4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중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나?

A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준화가 시행된다고 해서 입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총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는 개별 고등학교별로 입시를 치르지는 않지만 지원자 전체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총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을 우선 선발하고, 이 선발된 학생들을 추천 등을 통해 각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명문고' 입학에 위한 지나친 경쟁은 사라지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경쟁은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2. 학생 배정 방법

입학 지원서 작성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망 순위별 학교명이 기재된 입학 원서를 제출한다.

선발 고사 실시 및 전형 방법

지원자 전체에 대하여 선발 고사를 실시한다. 선발 시험 성적 100점과 내신 성적 200점을 합산한 성적에 의하여 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총 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학생을 선발한다.

1차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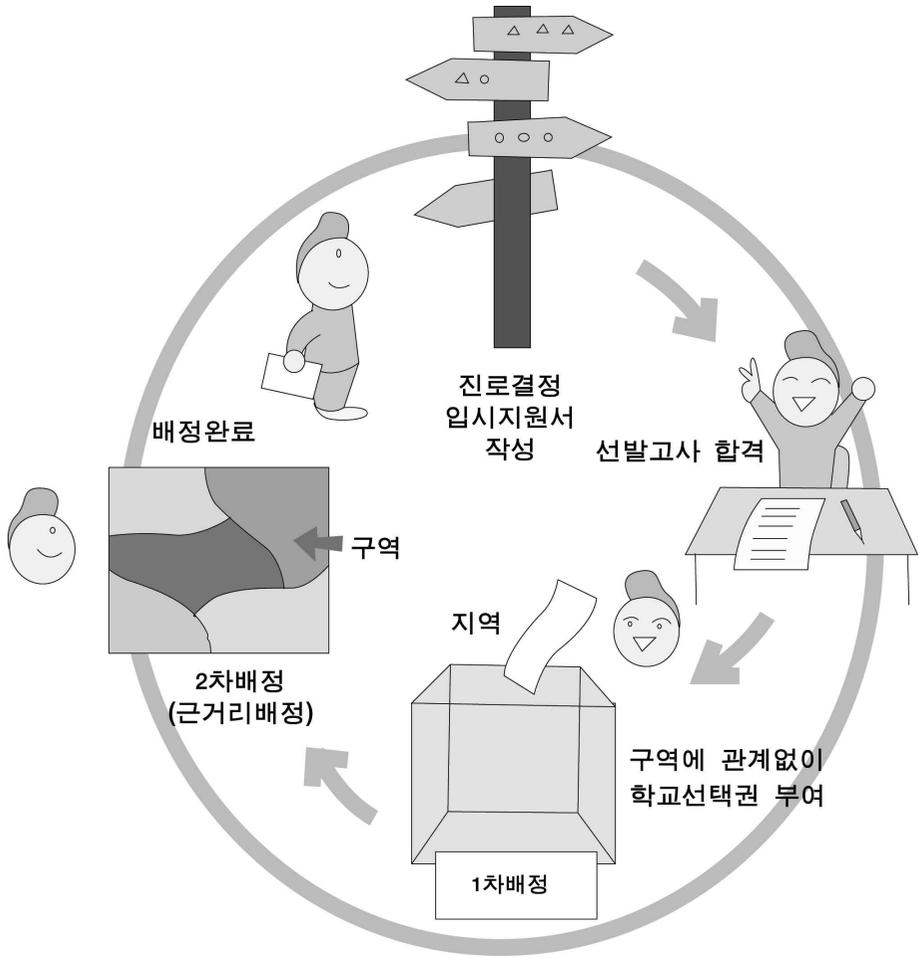
1차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 반영은 각 지역별 전체 학교의 1/3로 하며(수원, 성남, 고양은 5지망, 안양은 6지망), 평준화 지역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추첨 배정한다.

2차 배정

1차 배정에서 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에 1차 배정 후 남은 정원만큼 해당 구역의 고등학교에 지망한 순위를 토대로 추첨 배정한다.

추첨 방법

배정 순위별 학생 배정 시 지원자가 특정 학교의 정원보다 많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무작위 배정한다.



<학생 배정 방법의 예시>

1차 배정 비율 50%, 2차 배정 비율 50%, 각 고등학교의 정원을 500명이라고 가정하여 배정할 때, 배정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1차 배정

홍길동이란 학생이 A고교를 제1지망했다고 할 때, A고교의 정원이 500명이고, 1차 배정 비율이 50%이므로 1차 배정에서 배정할 수 있는 인원수는 250 명이다.

▶ **A고교를 1지망한 학생이 250명 이하일 경우:** A고교에 배정된다.

▶ **A고교를 1지망한 학생이 250명을 초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체 지원자 중 250명을 무작위로 추첨 배정한다. 여기서 탈락한 잔여 인원은 제2지망으로 넘어간다.

홍길동이 1지망 배정에서 탈락하고 제2지망에 B고교를 지망했다고 가정하면,

▶ **B고교가 1지망자로 1차 배정에서 배정할 수 있는 정원을 모두 채웠을 때:** 홍길동은 제3지망 고교로 배정이 넘어간다.

▶ **B고교가 1지망자로 1차 배정에서 배정할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잔여 인원을 제1지망 배정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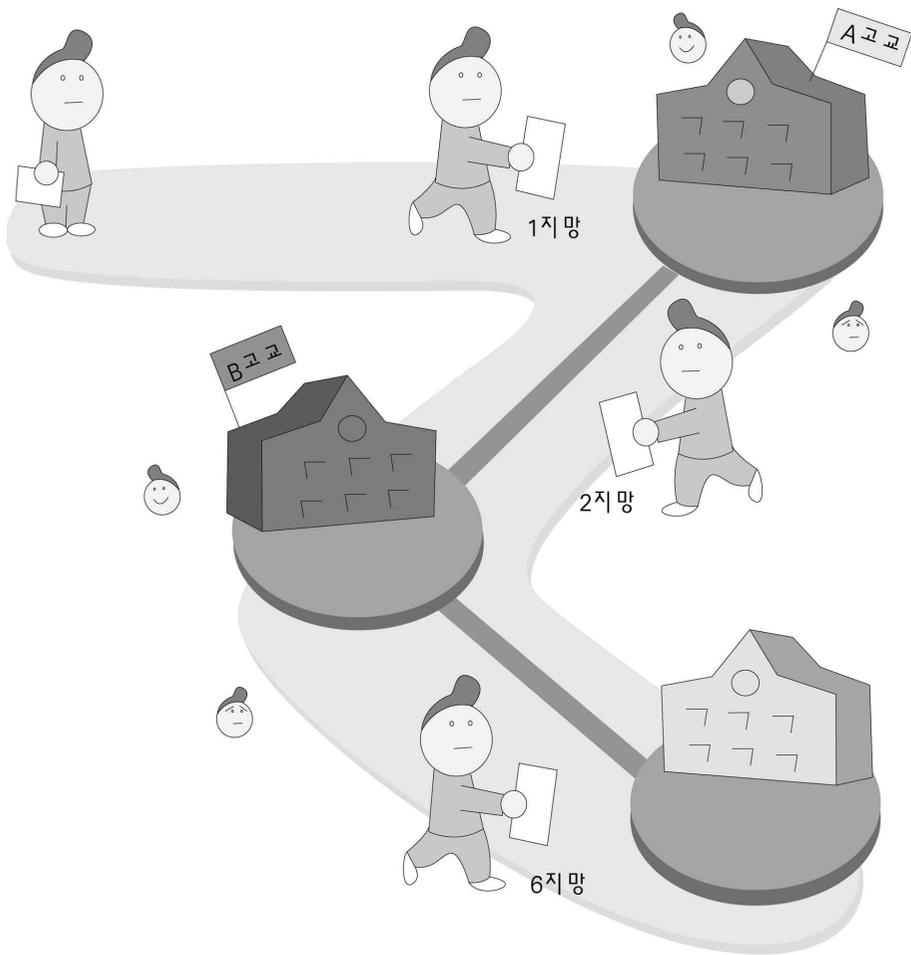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5~6지망까지 배정한다.

- 2차 배정

1차 배정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 배정에서는 구역 내 고교 중 첫 번째 지망한 학교부터 배정한다. 홍길동의 지망 중 구역 내 첫 번째 고교가 C고교라 할 때, C고교가 1차 배정 후 남은 정원만큼을 1차 배정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홍길동의 지망 중 구역 내 두 번째 고교가 D고교라 할 때, D고교가 구역 내 첫 번째 지망자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는 1차 배정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역 내 고교 중 세 번째로 지망한 학교로 넘어간다.
앞에서 지망한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역 내 고교 중 마지막에
지망한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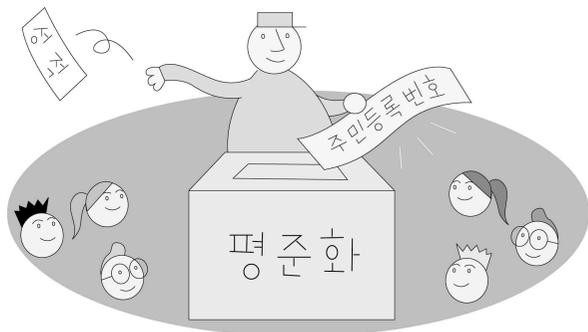
【문고 답하기】

Q1 선지원 후추첨을 근간으로 하는 학생 배정 방식이 기존의 학교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것 아닌가?

A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평준화 제도 실시는 비평준화 제도하에서 일부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졌던 학교 선택권을 대다수 학생들에게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만이 학교 선택권을 우선 보장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성적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학생이면 누구나 자기가 가고싶은 학교를 지망할 수 있다.

특정 고등학교의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비평준화 제도에서는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였지만,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성적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에 기초한 공평한 추첨에 의하여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만큼을 배정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학교간 서열화가 그대로 나타나기 어렵다.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에서도 기존의 학교간 서열과 배정된 학생의 성적 순위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었으며, 1지망 배정 비율이 60%로 나타났다는 것은 학생들이 1지망을 기존의 서열화된 학교 이미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기존의 서열화된 학교 이미지에 의존하여 지망을 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정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서열화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또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반드시 성적에만 있지 않으며 통학 여건, 면학분위기, 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교통, 동아리 활동, 종교 등 다양하며, 평준화가 정착되면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Q2

고교 평준화는 ‘ㄹ’ 자형 배정 방법을 도입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A ‘ㄹ’ 자형 배정 방법이란 선발 고사에 합격한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순위를 작성한 다음 평준화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혹은 구역 내 모든 고등학교에 임의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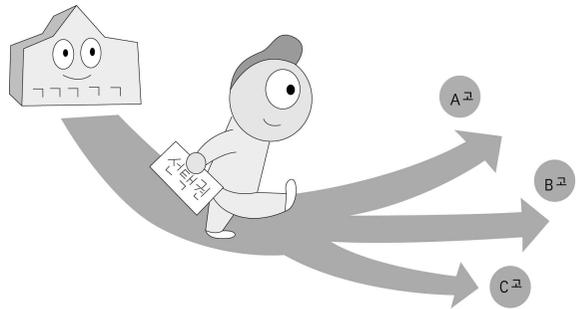
[표] ‘ㄹ’ 자형 배정 방법

학교명	A고	B고	C고	D고	E고	F고	G고	H고	I고	J고
학생성적 순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20등	19등	18등	17등	16등	15등	14등	13등	12등	11등
	21등	22등	23등

이러한 방식은 학교간 입학 성적이 매우 균일하다는 장점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무시된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학생의 배정을 학생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학교 중심으로 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배정방안의 경우는 학교간 성적이 약간 차이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별 성적 차이는 1~6개월 후 다시 평가하였을 때 순위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며, 매년 유동적이고 규칙성이 없다. 이러한 성적 차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영역별 학교의 다양성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준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의 이념은 학생들에게 입시

로 인한 정신적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학교를 선택하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ㄹ’ 자형 배정 방안을 도입하지 않아도 비평준화 제도하에서 있었던 극심했던 학교 서열화는 사실상 무너진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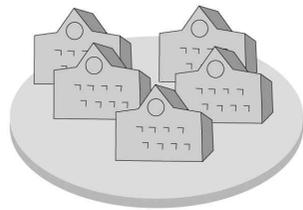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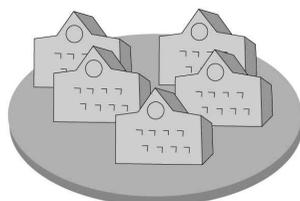


Q3

1차 배정에서 학생의 학교 지망 순위를 1지망이나 3지망까지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A 1차 배정은 학생들이 구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1차 배정에 반영 학교 순위를 5~6지망으로 결정한 것은 평준화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의 1/3 정도 순위에 해당하는 선지망학교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모의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즉 1지망만 반영했을 때, 2지망까지 반영했을 때.....10지망까지 반영했을 때 등으로 반영 순위에 따른 모의 배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1지망에서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2지망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학교의 경우 3지망까지 반영하게 되어도 정원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선호도에 의한 학교 서열화가 드러나는 것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1차 배정에서 할당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지망 순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망 순위를 반영하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한다는 1차 배정의 목표와 상치되기 때문에 전체 학교의 1/3 정도 순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평준화 지역의 1/3에 해당하는 지망 순위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이 5지망이고, 안양권이 6지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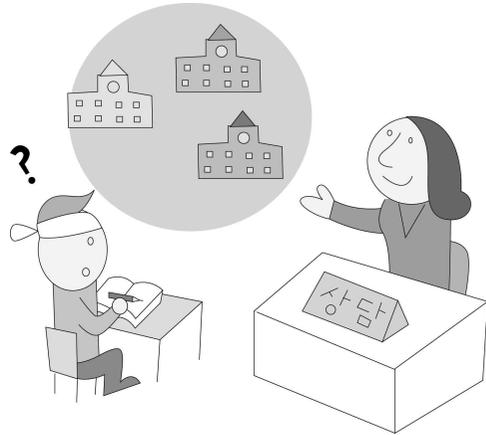


Q4

중학교 선생님들이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지망학교 선정을 유도하여 고등학교가 서열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A 비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성적에 의하여 극심하게 서열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제자를 진학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성적에 따라 진학 지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평준화 제도에서는 오직 성적에 의해서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기에 제자들의 일반계 고등학교 탈락을 막기 위한 이러한 진학 지도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비평준화 제도하에서의 이러한 중학교 교사의 진학 지도 방식을 평준화 제도하에서도 똑같이 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교사가 성적에 따른 진학 지도를 한다 해도 성과와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같은데 학부모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지원자가 학교의 정원보다 많을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공평하게 추첨 배정하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인기도가 있는 학교의 경우 그 학교에 배정받을 확률이 낮아지므로 비교적 통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인기도가 높지 않은 학교를 우선 지망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평준화 제도 시와는 달리, 원하는 학교의 진학 여부가 성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추첨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에 따라 특정 학교의 지망을 유도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과거의 인기도에 의존하여 학생을 성적에 따라 진학 지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고입제도 설명회를 강화할 예정이며, 교사의 올바른 진학 지도를 돕기 위한 장학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Q5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고 진학을 위한 입학 원서를 제출할 때, 학교 순위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A 선지원 후추첨 방법에 의한 학생 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지망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제1지망 학교로 배정되지 않으면 전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제2지망, 제3지망 학교들도 이미 제1지망 학생들로 모두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제2지망, 제3지망 학교는 인기도가 높지 않은 학교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간의 교육여건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급적 거주지 근처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가 가장 원하는 학교는 사실상 1지망이지만 같은 학교를 1지망한 학생이 학교의 정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되기 때문에 그 학교로의 배정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 두 번째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기회가 있으나 자신이 선택한 2지망 학교가 1지망에서 미달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 학생이 원하는 학교의 지망 순서를 작성하는 일은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선호도가 높은 학교를 앞지망으로 선택한다면 가장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도 동시에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평준화 제도에서 있었던 기존의 서열화된 학교 순위가 평준화의 도입으로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서열화된 학교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지망 순위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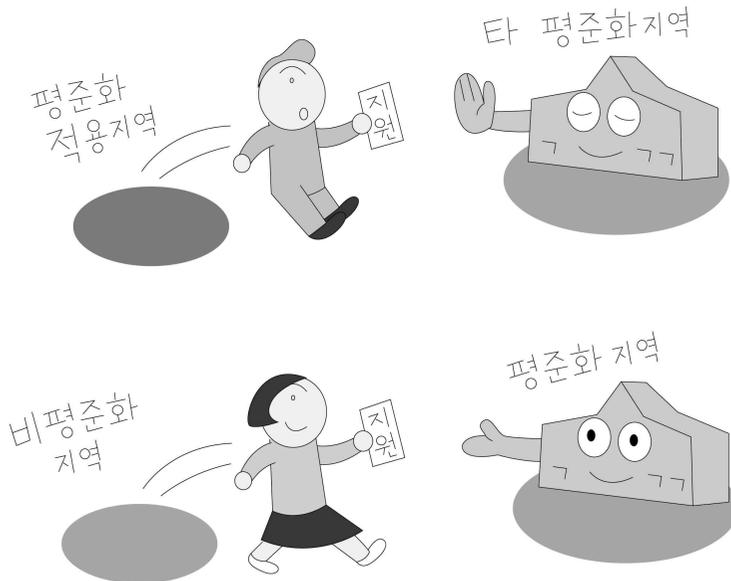


Q6

평준화 실시 지역이 아닌 외부 지역 출신 학생들이 평준화 적용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가?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평준화 적용 지역에 지원할 때 불이익은 없는가?

A 현재 경기도내 고교 진학은 도 전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 적용 지역 학교에 비적용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원하거나, 적용 지역 출신 학생들이 비적용 지역 고교에 지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다른 적용 지역으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양시 출신 중학교 학생은 부천시 소재 고교에 지원할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 출신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으로의 지원은 제한이 없으나 학생의 배정 시에는 적용 지역 학생들과는 약간 다르다. 비평준화 지역 출신 학생들은 1차 배정에서는 해당 지역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배정되지만 2차 배정에서는 정원보다 배정 대상자가 적은 구역으로 배정한 후 그 구역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배정된다. 비평준화 지역 출신 학생들은 학생 배정에서 최소한의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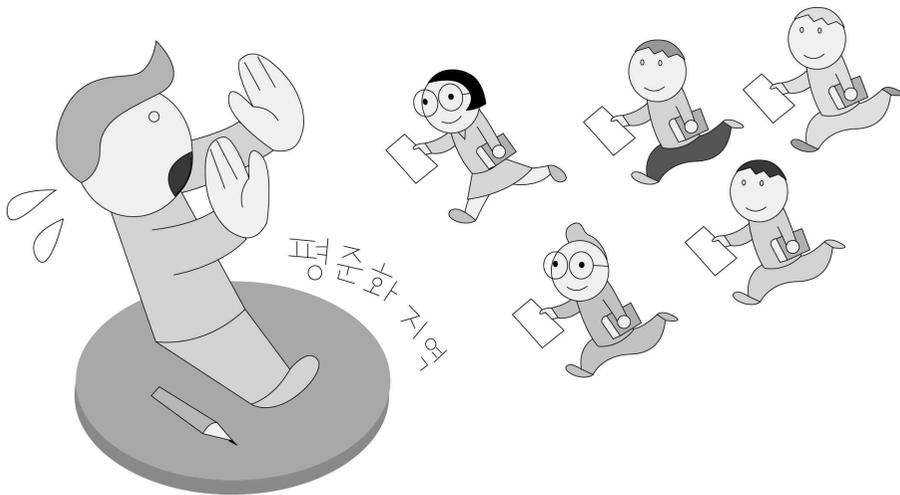


Q7

외부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로 인하여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외부 학교로 나가는 학생이 많다. 평준화 지역에서 외부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A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권한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다만, 비평준화 제도와 달리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확률이 분명치 않은 상황과 배정 방법에서 약간의 불이익으로 외부 유입 학생 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일반계고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이상 지원자가 많은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 전형에서 탈락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학생의 경우, 외부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성적이 좋은 경우에도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전기 특차 모집을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 전기 특차 모집을 통하여 시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면 원거리의 타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통학할 필요가 없게 된다.



Q8

학생 및 학부모들이 접할 수 있는 각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망 순위를 작성하는가?

A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망 원서 작성 시 평준화 지역의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지망순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이 전체 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위치, 교통 여건, 학교 교육 활동,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특별 활동 상황 등 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평준화 지역의 각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망 순위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평준화 지역의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소개, 교원 현황, 학교 위치, 시설 내용, 학교의 특색 사업, 교육 계획서, 향후 교육 활동 추진 계획, 기타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학교 선택과 교사의 진학 지도를 돕기 위하여 평준화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소개 자료를 각 중학교에 배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3. 구역 설정

구역설정의 원칙

- 행정 구역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구역 설정이 곤란한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 구역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정한다.
- 구역은 통학이 가능한 비교적 넓은 범위로 설정한다.
- 학생의 구역 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지로 한다. 단, 수용 계획상 중학교 배정 시 타 구역으로 배정된 학생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 제출하면 구역 변경이 가능하다.

수원시 지역

구역명	행 정 구 역
1구역	장안구, 권선구 일부(입북동, 당수동, 호매실동, 탑동, 금곡동, 구운동, 서둔동, 고등동)
2구역	팔달구, 권선구 일부(고색동, 평동, 오목천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매교동, 교동, 곡선동, 곡반정동, 권선동, 매산동, 장지동, 대황교동)

성남시 지역

수정·중원 구역, 분당 구역

안양권 지역

안양 동안 구역, 안양 만안 구역, 과천 구역, 군포 구역, 의왕 구역

고양시 지역

덕양 구역, 일산 구역

부천시 지역

단일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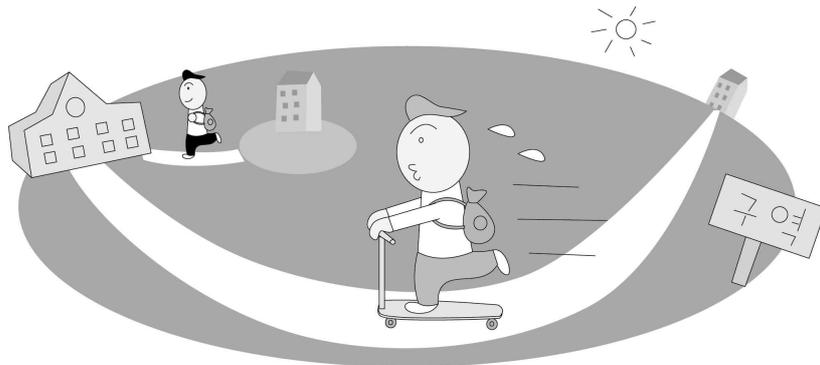
【질의 응답】

Q1

고등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근거리 배정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또한 출신 중학교의 소재지보다 학생의 거주지로 학생의 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A 근거리 배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특정 고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학교 입학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에 의한 학생 배정이 보다 쉬워진다. 이러한 방법은 학교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을 배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GIS에 의한 방법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채택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의 고등학교 주변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예상되고, 이러한 위장 전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거리 배정하는 학생이 정원보다 훨씬 많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별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같은 아파트라도 앞동이 해당 학교에 더 가까우며, 윗층보다 아래층이 더 가깝다는 주장이 일어날 수 있다. 선호도가 높은 학교 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선호도가 낮은 학교 주변 지역의 재산상 불이익 등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근거리 배정을 GIS에 기초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부 타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실례가 있다. 학생의 구역 결정을 주소지로 하지 않고 출신 중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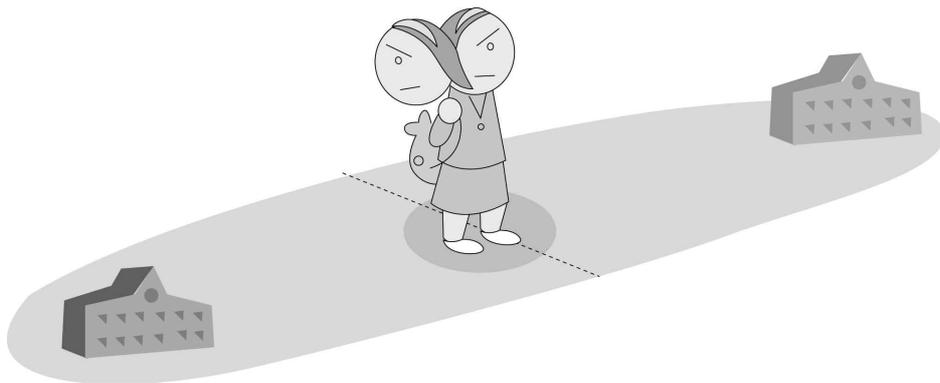


Q2

근거리 배정을 위하여 행정 구역 중심의 구역을 설정하였다고는 하나 행정 구역이 교통 여건에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구역의 경계선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리나 교통 여건으로 볼 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A 구역 설정을 근거리 배정과 행정 구역 중심을 원칙으로 설정한 것은 학생들이 가급적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행정구역별 자기 구역 배정 비율을 높임으로써 자치 단체가 자기 구역의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개 평준화 지역의 경우 행정 구역을 무시한 구역 설정을 검토하였으나 인위적 구역 설정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고, 거주지에 따른 이해 관계로 주민들간의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

근거리 배정을 위하여 행정 구역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나 구역 경계선에 있는 학부모들은 교통 여건과 지리적으로 다소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 구역 설정 방법은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 구역 중심의 구역 설정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교통 여건이 불편한 구역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선지원 후추첨의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학교에 배정될 기회가 있다. 즉 입학원서에 고등학교 지방 순위를 작성할 때 근거리를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한다면 원거리의 통학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근거리 배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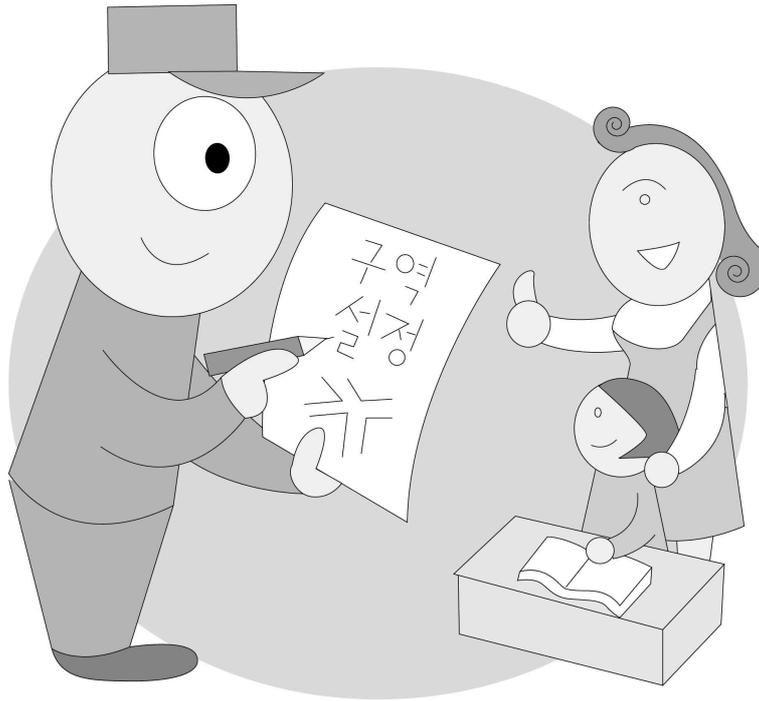


Q3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평준화 지역의 구역 설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A 경기도교육청의 용역 의뢰에 의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역별 구역 설정안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원, 성남, 고양 지역은 경기도교육청의 구역 설정 방안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원은 74.5%, 성남 78.0%, 고양 72.0%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양권은 경기도교육청의 5구역 설정 방안에 대해 적절한 구역 설정이라고 반응한 비율이 48.2%로서 일부 구역 더 세분화 6.0%, 일부 구역 통합 38.2%, 완전

히 새로 설정 7.6%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양권 지역의 경우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이해 관계에도 불구하고 5구역 설정이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Q4 안양권을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 5구역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2차 배정을 위한 구역 설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다. 안양권의 구역 설정은 근거리 배정과 행정 구역 중심의 구역 설정 원칙에 충실하고, 안양권의 지리적 특성, 지역 정서, 구역별 이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5구역으로 설정하면 우선 안양권의 양 극단에서 교차 통학하는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역간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 요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안양지역에서는 지역간 이해 관계에 따라 다양한 구역 설정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다른 구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서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 조사 결과 참여한 지역별 이해 관계에도 불구하고 5구역 설정안에 대하여 48.2%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일부 구역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로 나타났으나, 통합의 형태에서는 안양시+과천시 29.7%,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15.8%, 안양시 동안구+군포시 14.1%, 안양 동안구+과천시 11.4%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별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을 희망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Q5

안양시의 지역 정서로 볼 때 동안구와 만안구를 단일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안양 동안구의 수용률이 다른 구역에 비하여 낮으며, 이로 인하여 동안구 학생들만 타 구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많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A 구역은 가급적 근거리 배정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동안구와 만안구는 같은 안양시에 속하지만 안양시의 양극단은 상대적인 원거리에 해당한다. 같은 시(市)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원, 성남, 고양도 같은 시이면서 근거리 배정을 위하여 각각 2개의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동안구를 독립 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동안구의 수용 인원 중 2차 배정 비율만큼은 동안구 학생들에게만 우선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동안구 수용률 중에서 상당 부분은 동안구 학생들에게만 배정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만약 동안구를 만안구, 과천 혹은 의왕과 함께 구역을 묶었을 때는 그 인원도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고, 안양권 지역의 양극단으로 통학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동안구 일부 학부모님들은 동안구와 만안구, 그리고 과천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안양과 과천을 동안구, 만안구, 과천으로 분리하여도 만안구와 과천의 수용 여유분은 거의 대부분 동안구 학생들로 채워지므로 이들 지역에 배정되는 학생 수는 통합했을 때와 다르지 않다. 모의실험 결과 동안구의 선발고사 예상 합격자 중 약 88%가 동안구, 만안구, 과천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서도 5구역 설정 방안 외에 다른 구역별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8.2%의 사람들 중 지역교육청 단위로 구역을 설정하는 안에 대한 지지율이 29.7%에 불과하고, 만안

구와 동안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율이 15.8%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동안구의 일반계고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동안구와 만안구를 단일 구역으로 설정했을 때 외관상 수용률은 67%이며, 안양과 과천을 단일 구역으로 하면 외관상 수용률이 77%라는 사실이 마치 수용 여건이 더 좋은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안구를 의왕과 합쳐 단일 구역으로 설정해도 외관상 수용률은 훨씬 높아지고, 안양권을 구역 설정 없이 단일 구역으로 하면 외관상 수용률이 77%가 된다. 그러나 모의실험 결과 이러한 외관상 수용률에 관계없이 동안구 학생들이 안양, 과천에 배정되는 비율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안구 출신 학생이 동안구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타 구역으로 배정되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낮은 수용률에도 불구하고 동안구를 독립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동안구 출신 학생들에게 결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안양권 전체로 보면 의왕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이 동안구이다. 의왕시에서 수용 여유가 생겼을 때 학생 배정의 첫 번째 기준은 근거리라는 것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역 설정에 관계없이 평준화 제도의 지원 대책으로서 안양 동안구의 낮은 수용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은 「7.20교육 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수용률을 최대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안양시 동안구 지역의 학생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해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고 2002학년도에 관양고를 개교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고등학교의 신설을 2003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Q6

2차 배정시 각 구역별 고등학교 정원과 학생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배정하는가? 2차 배정에서 타구역 이동시 타구역이 복수일 때 어떤 기준으로 타구역을 결정하는가?

A 2차 배정 시 구역별 일반계 정원과 학생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원보다 배정할 학생 수가 많은 구역을 먼저 배정한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정원보다 배정할 학생 수가 적은 구역에서 그 구역의 학생들과 함께 동등하게 배정 받는다. 미달된 구역의 입장에서 보면 정원이 넘치는 구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구역별로 정원에 맞게 학생을 배분한 후에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구역의 정원보다 배정할 학생수가 많은 구역부터 먼저 배정하는 문제는 정원보다 초과한 학생 수를 미달된 구역에 배정하기 위한 한 방법일 뿐이다.

2차 배정 시 자기 구역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인접 구역에서 그 구역의 학생들과 함께 추첨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접 구역이 복수인 경우 그 구역을 결정하는 방법은 학생이 작성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망 순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즉 구역별 고등학교의 지망 순위를 점수화하여 구역 내 고등학교 지망 순위 평균이 높은 구역으로 우선 배정을 받는다. 예컨대, 2차 배정시 정원보다 배정할 학생 수가 적은 구역이 만안 구역, 과천 구역, 의왕 구역이라고 가정할 때, 정원보다 배정될 학생이 많은 동안구 소재 중학교 출신 학생이 2차 배정에서 동안구에서 배정받지 못했을 경우, 학생이 지망한 만안구 소재 고등학교의 순위 평균이 과천시 소재 고등학교 순위 평균이나 의왕시 소재 고등학교 순위 평균보다 높다면 만안구에서 배정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정을 하는 이유는 타구역 중 학생이 선호하는 구역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모의실험 결과 지망 순위를 작성할 때 상당 부분 통학 거리를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Q7

수원시에서 권선구를 독립 구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분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역 설정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가?

A 권선구에 소재하는 5개 고등학교 중 4개교가 팔달구와의 경계쪽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으며, 구운중학교와 호매실중학교가 위치한 권선구 북쪽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분포가 불균등하다. 또한 구역별 고등학교의 학생 거주지 집중도가 장안구와 팔달구는 높은 반면, 권선구는 3개 행정 구역별로 분산되어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구역의 경계선을 수원역에서 남양간 도로로 설정한 이유는 영신고등학교의 2001년 입학생의 거주지가 대부분 권선구와 팔달구로 집중되어 있으며, 장안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권선구의 호매실중학교와 구운중학교는 장안구 소재 고등학교로, 팔달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영신중학교는 권선구와 팔달구 소재 고등학교로 주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남양간 도로변에 위치한 고색중학교는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아 진학 현황은 없으나, 모의 지망 조사에서 권선구와 팔달구 소재 고등학교를 주로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구역별로 3구역으로 설정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의 차이가 심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수용률에서도 장안구와 권선구는 최대 27%까지 심한 격차가 발생한다. 2구역 설정 시는 중학교 수가 각각 16, 19개교로서 유사하고, 고등학교 수는 10개교로 동일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수용률의 차이를 15%까지 줄일 수 있다. 장안구의 대평중학교 360명과 명인중학교 300명이 졸업하는 2004년에는 약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구역 설정안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 조사 결과 74.5%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한국교육개발원도 경기도교육청의 구역 설정 방안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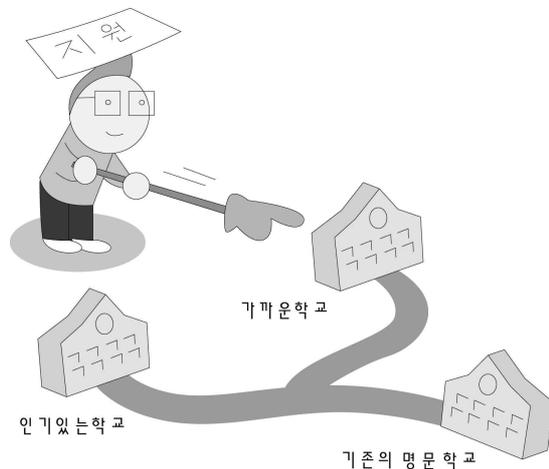
구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2구역을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20여년 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된 수원시 평준화 제도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서수원권에 20만명이 입주하게 되고, 권선구 북부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신설되어 수용률이 균형을 이루게 되거나 영통 지역의 신설 학교들이 안정 상태에 이르면 이들 지역을 각각 독립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Q8

부천시의 오정구와 소사구는 원거리에 해당된다. 부천시에서 구역 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A 부천시의 오정구와 소사구는 비교적 원거리에 해당하여 통학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근거리 배정의 원칙에 따라 구역 설정을 검토하였으나 구역 설정이 보류되었다. 부천시는 도시구조가 밀집되어 있어 구역 설정이 쉽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원미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행정 구역별 일반계 고등학교 수용 시설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구역을 설정하는 대신에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지방 원서를 작성할 때 지방 학교 순위를 가급적 근거리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진학 지도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결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여건이 개선되면 근거리 배정을 위한 구역 설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4. 배정 비율

□ 1차 배정 비율이란?

해당 학군에 소재한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지망한 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 2차 배정 비율이란?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 내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차 배정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그 학생이 제출한 해당 구역 소재 고등학교의 지망 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예시】 1차 배정 비율 50%, 2차 배정 비율 50%

A학교의 정원이 500명일 때 250명은 해당 학군의 전체 지원자 중에서 A학교를 지망한 학생을 추천 배정하고(1차 배정), 나머지 250명은 1차 배정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구역 내 중학교 출신 학생 중 A학교를 지망한 학생에게 추천 배정한다(2차 배정). 만약 1차 배정에서 250명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정원은 2차 배정으로 최종 배정된다.

구 분 \ 지역	성남시	고양시	안양권	수원시	부천시
1차 배정비율	50%	50%	40%	70%	100%
2차 배정비율	50%	50%	60%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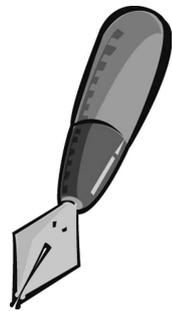
Q1 수원시의 경우 1차 배정 비율이 70%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이러한 비율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가?

A 수원시는 1979년부터 1차 배정 100%만으로 학생들을 배정하여 왔으며, 평준화 지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가 광역화되면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어 근거리 배정을 위한 구역 설정이 검토

된 것이다.

구역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배정비율을 70%로 결정한 이유는 우선 오랫동안의 평준화 경험으로 대부분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활용하여 근거리의 학교를 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70%의 학생들은 대부분 근거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학교를 지망하여 배정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모의실험 결과 1차 배정비율이 70%일 때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증설되어 행정구역별로 고등학교가 균형적으로 분포하게 되면 보다 세분화된 구역의 설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1차 배정 비율을 낮추고 2차 배정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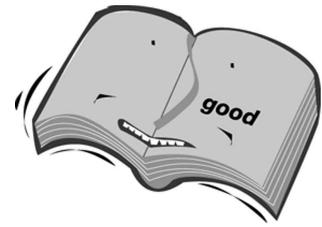
Q2 안양권의 1차 배정비율 40%는 너무 낮은 것 아닌가?

A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서열화로 인하여 원거리 통학을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교통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열화 된 학교에 진학하여 왔으며, 근처의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원거리 통학도 감수하여야만 했다.

평준화 제도에서는 학교간 서열화가 사실상 무너지게 됨으로써 원거리통학의 가능성이 훨씬 감소하게 되었다.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짐으로써 가까운 학교에 지망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 그러므로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학생들을 가급적 통학하기 불편함이 없는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모의실험 결과에서 1차 배정 비율이 30~50%일 때 학생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배정 비율 결정을 위한 우선 검토 대상으로서 의견 수렴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의왕과

군포의 학부모들은 50%를 선호하고 있고, 안양과 과천의 학부모들은 3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조사결과에서도 30%와 50%의 선호도가 양극화하여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이해 관계에 따른 이러한 선호도를 절충하여 대체로 수용 가능한 배정 비율을 선택하게 되었다.



5. 고교 평준화 지원 대책

□ 수용 능력의 개선

「7.20 교육 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2002년까지 OECD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되, 금년 하반기부터 안양 동안구 등 수용률이 낮은 일부 평준화 지역의 경우 수용률 확대를 추진한다.

○ 학교 신설

2002년도에는 5개지역에 4개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개발 제한 구역(GB)내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학급 증설

평준화 대상 지역에 대하여 기존 학교의 보통교실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2002년도에 약 1,329실을 증축하여 수용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예산 : 약 1천4백76억원



□ 교육 환경 개선

- 학교 시설 여건 개선 및 교육자료 확보 78억원 지원
- 7차 교육 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실 확보 170억원 지원
- 비적용 검토 대상 학교의 시설 여건 개선 41억원 지원



Q1

비적용 학교 검토 대상교를 평준화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A

성남 지역과 안양권 지역에 일부 학교를 비적용 학교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평준화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지역의 많은 학부모 및 교원이 비적용 학교 지정을 지지하지 않고 있고, 또

해당 학교 관계자들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비적용 학교로 지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 이들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학교 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선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시설·설비의 확충 등 총체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3개교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2001학년도에 약 16억원, 2005년까지는 총 4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Q2 앞으로 평준화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가?

A 평준화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7·20 교육 개혁에 의해 추진 중인 「교육 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평준화 대상 지역에 대하여 고등학교의 신설, 기존 학교의 교실 증축, 시설 여건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이 지역의 수용 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준화가 실시되는 성남, 고양, 안양권, 부천, 수원 등 5개 학군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약 1,4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 중 외부 유입 학생 수용,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200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약 1,180억을 투자하여 약 1,300여개의 학급을 증설할 방침이다.